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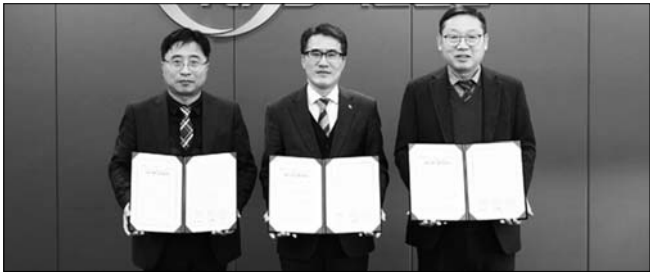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통해 데이터 활용 선도

국민연금, 전북자치도·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가명 처리·활용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적정성 강화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대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것을 말한다. 가명 정보는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민·관·학계 등에서 공동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확대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안전하게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관리하기 위해 전문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13일 조영훈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사진 가운데)이 김재현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사진 왼쪽),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가명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상호협력 △가명 처리 협력 개선점 발굴 및 성과 공유 △임

직원 개인정보 인식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

목적의 적합성, 위험성 검토 및 가명 처리 결과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적정성 검토'를 전문가관에 요청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협약 참여기관은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가명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나아가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훈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

올해 신규보증 2200억원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농림수산업자들의 실익증대를 위해 올해 약 2,2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으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은 행,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총 76개 관할금융기관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농신보 남원센터는 지난 한 해 1,997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업·농촌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도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신보 남원센터 이성로 센터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농신보 남원센터 직원들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겨진 소임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5 세계정부정상회의서 'Global Future Fit Award' 수상

농진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공 사례... 국제적 인지도 향상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11~13일(현지시간)까지 두바이에서 개최한 '2025년 세계정부정상회의(WCS)'에서 우간다 농업연구청(청장 요나 바구마)과 'Global Future Fit Award' 공동수상 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Global Future Fit Award'는 세계정부 정상회의가 정부 간 국제 사업이나 새로운 계획을 선정해 수여하고자 올해 신설한 상이다. 농촌진흥청과 우간다 농업연구청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수상기관 대표로 우간다 오켈로 오리엄 외교부 장관과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황용 국장이 참석했다.

세계정부정상회의는 2013년 이집트

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주도로 설립돼 해마다 각국 정부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가 모여 국제적 지식을 교류하는 국제 토론회다. 올해 회의에는 국가 정부 수반을 비롯해 장관, 국제기구, 정부 대

표단 등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정부정상회의의 부의장이자 두바이 정부발전미래부 장관인 오후드 알루미는 "정부 간 협업과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200개 프로젝트 중 코피아(KOPIA) 우간다 오렌지 사탕 마을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코피아(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테소(Teso) 지역에서 오렌지 사탕 마을 사업을 추진했

다. 빗물을 저장하는 1나무 1저수 시스템 및 오렌지 반점병 방제 기술 등을 보급해 생산성을 증대했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개발협력의 날' 기념 국제개발협력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우간다 농업연구청 요나 바구마 청장은 "우간다 오렌지 사탕 마을 사업이 수상자로 선정돼 무척 영광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우간다의 농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코피아(KOPIA) 우간다 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다져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새만금개발공사, 2025년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 채용

경력직 6명, 신입직 8명, 육아휴직 대체 2명, 청년인턴 6명 총 22명 채용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 2025년 상반기 정기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채용 분야는 △경력직(토지공급, 세

무,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6명 △신입직(행정, 전산, 토목, 건축, 전기) 8명 △육아휴직 대체(행정, 전산) 2명 △청년인턴 6명으로 총 2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전형별 채용 방식 등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여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차별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인사 담당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공사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알과 경영을 함께 실현할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지원자들이 도전하여 새만금 개발의 신속한 추진과 국토 균형 발전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홈페이지(www.sdmak.or.kr) 및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디지털 전용상품 출시

'내맘 속 정기에금', 가입기간·금액 자유롭게 설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가입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상품 '내 맘 속 정기에금'을 출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 맘 속 정기에금'은 원하는 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기에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12개월 월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최저금액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65%~연 2.95%이며,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3%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고 연 2.95%~연 3.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가입 당일 전북은행 모바일뱅킹 첫거래 고객 0.1% 마케팅 활용 등의 고객 0.1% 전북은행 입출금계좌 이용고객 0.1% 이다.

또한 이번 상품은 계약기간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 2회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31일까지 '내 맘 속 정기에금' 1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1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10명), 배달의민족 3만원권(3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매(30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응모는 2월 17일부터 전북은행 모바일 앱 '쓱뱅크'에서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예금가입 고객들의 금융거래 특성과 니즈를 분석해 가입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바우처 지원 2차 공고'

중기청, 최대 5천만원 제공 컨설팅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13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하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 전통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제조 소기업 중 뿌리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14대 뿌리산업 업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지류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SW, 엔지니어링설계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최대 85%까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개발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